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4월 6일 (제130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목회자 영성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인의 아내였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는 '이초석 목사를 찾아가라'는 꿈을 꿔다며 내게 연락을 한 것이다. 지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분재 전문가였다. 그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분재를 여러 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많은 분재를 남기고, 나는 세미나를 마친 주말에 그의 집에 들러 유족들을 위로하고, 차후의 일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해줬다.

나는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본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 떠올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돌아간 그를 생각하면 한없이 안타까워서였다. 그는 기쁨 부음을 받은 목사였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목사가 주의 일을 해야지, 분재나 하고 있으면 되나."라고 충고했고, 그는 '조금 있다가 하겠다'는 말로 내 입을 막곤 했다. 그런 그가 불현듯 갔다. 그가 남긴 많은 분재들, 그건 이제 이리 떼처럼 달려드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 몫일 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까.

나는 이번 세미나 때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라는 찬송만 불렀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언제 부름을 받아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내놓을 작품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수익에 왜 주머니가 없을까? 세상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지인이 그 값진 분재 하나 못 가지고 다 놓고 간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분재 전문가로 인정 받았지만,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니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만도 빈손이면 안 받아준다는데...

우리, 주 앞에 내놓을 작품을 만들자. '이 겁니다, 주님' 할 수 있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는 그 작품을 위해 또 지구 반대편인 멕시코 살티요로 간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우리가 예배 끝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하여 비록 그 길은 고난의 길이겠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그 주님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하는 절절하고도 의지에 찬 고백이다. 목사님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찬양 가사 같아서

이 말씀은 단지 교회에 국한된 잠언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요, 사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멀지 않고, 정도를 따라 일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운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가 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이기

목사님이 더욱 기도에 불을 붙이고 철따라 기도원 집회, 기도성회, 나아가 세계 선교에 매진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기성교회 같으면 이미 은퇴하여 편히 쉬실 연세이지만, 목사님은 지금도 20대 청년의 기력을 달라 기도하시며 다음 주면 저 머나먼 지구 반대편 멕시코(Mexico)로 날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다.

"100억, 아니 1,0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이 노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왜?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2004 멕시코 쌀띠요 집회 광경

가사 한줄 한줄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처럼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모습은 없다고 믿는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위 환경이 어떠한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를 존귀하게 한다. 잠언 말씀에도 나오지 않던가?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도 하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이 나라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비록 그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많은 난관을 헤쳐 오늘에 이른 역사적 저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오늘의 교회가 잠잠하다 못해 능력을 잃고 있다고 탄식하셨다. 70, 80, 90년대 그 많았던 부흥회들이 씨가 말랐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 세상에 휘둘리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셨다. 이게 다 본연의 사명을 잃었거나 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이 모습은 정말 나를 닮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하명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반드시 그날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목사님처럼, 이 땅에 부여된 사명에 부도 내지 않기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저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멕시코 쌀띠요 집회

2025년 4월 8일(화)~18일(금)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민14:11~20)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 하느냐?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닌가.’
 제가 쓴 잠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지파의 족장을 택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의 족장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돌로 갈렸습니 다. 10명의 족장은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장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메뚜기 같다”(민13:32~33) 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도 바꾼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족장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사울이 불순종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울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15:23)고 했습니다.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는 참지 못하시고 다 쓸어버리라(민14:11~12)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니 다. “지금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여호와와 하나님이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다 할 것이니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민14:20)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신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대로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는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습니다(출32:12~13).
 그런 인물은 또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무자(無子)했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삼상1:6).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사 한나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것도 세상에 돌도 없는 근사하고 의로운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왕하20:1)고 말합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는 그 즉시 면벽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를 낮게 하셨고,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23:19) 하였고, “나여호와와는 번역지 아니하니”(말3:6)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그렇다 면 무 엇이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했을까요? 바로 기도,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출32:32) 하는 심정으로 모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1:10)라고 했고, 이를 지켜보던 엘리제사장이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사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비롯한 일곱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사망 선고를 받은 그는,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사38:14)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직 궁정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를 낮게 하리니”(왕하20:5).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의사인 우리 성도가 코로나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했었습니다. 담당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례 치를 준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 교역자에게 합심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 시대 목사가 환상을 봤습니다. 이 성도가 죽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밀을 보라. 너를 살려달라고 종들이 저렇게 기도하니 다시 돌아가거라.” 하셨습니다. 그 성도는 당연히 살아났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다. 또 장로님 한 분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맸는데, 성도들의 합심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바꿔주십니다. 88년도에 펄스 콜레박사를 모시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들이 제가 잘못되었다며 저를 배제하고는 다른 목사를 초빙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하나님, 저 이 집회 안 하렵니다.”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며 계속 집회를 하라 하셨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28~32)는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주셨습니다. 또 무지개가 태양을 감싸고, 대성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많은 병자들이 줄줄이 나아와 고침을 받는 성령의 역사로 위로하셨습니다.
 과부의 간청에 콧방귀를 끼던 재판관도 결국 과부의 간청에 마음을 돌이킨 사건을 아시지요(눅18:1~5)?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도 돌리는데, 사람 마음이야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한은택 목사가 비자가 나오지 않자 미국대사관을 여러고 돌 듯 일곱 바퀴 이레를 돌고 기도했더니, 비자를 안 내주던 그들이 10년짜리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이 안 됩니까? 일이 꼬입니까? 아픈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녀가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도 버리고 간구하니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사 결국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것이 믿음이라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원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고, 대충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생각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냥 남편 열가나의 위로로 만족하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가 ‘나도 자식을 갖고야 말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죽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섰던 옛일을 들추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순서에 입각합니다. 하늘에서 먼저 매고 푸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곧 내가 먼저 매고 푸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말겠다 하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사 비를 내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도 되게 한 사람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성정입니까? 우리, 부정적인 생각, 썩은 생각을 잘라내고 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기도해봅시다.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내재가치

워런 버핏은 “가격은 여러분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여러분이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기업에 대해 그것의 내재가치 이상은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제시되는 가격을 본질적으로 부정확한 가치 추산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버핏은 “내재가치의 계산은 지극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으며, 종종 틀리기도 합니다.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내재가치 계산이 틀릴 가능성도 커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정밀성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면, 대략 맞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기업의 현재 주가와 여러분이 그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력에 부여한 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버핏처럼 현재 주가와 보수적인 추산을 통해 계산한 추정가치 사이에 충분한 안전 마진을 제공하는 큰 차이가 있느냐는 문제로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기업의 내재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주식은 사람들이 그것에 가까이 지불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으며, 정확한 균형가치를 알려주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내재가치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투자자들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기대’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은 타깃입니다. 과

거 버핏은 내재가치를 ‘충분한 정보를 가진 매수자가 한 기업 전체와 그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매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인 사적 소유가치(private owner value)’로 묘사했습니다. 결국 미래 수익력이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요인’인 셈입니다.

이때 가치투자자들이 가치평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이 ‘주주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과 주당순이익은 회계원칙에 따라 보고된 이익이지만, 기업소유자(주주)가 최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인 이익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주이익은 그 기업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주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부분소유권을 사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주주이익’인 셈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보장받았지만 미래 하늘나라의 삶, 그 지위를 결정할 상급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쌓아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내놓을 가장 내재가치 큰 상급을 쌓는 일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 세계 선교에 힘을 쏟고 계신 것이지요. 목사님을 본받아 이 땅과 장차 천국의 윤택한 삶을 위해 부지런히 자신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경 권사

:: 성경에세이 ::

다 받아!

여보게~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기도원 원장의 보고가 있었네. 먹거리가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였지. 그가 “목사님,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더 보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 받을까요?” 하며 물길래, 나는 “무슨 소리야. 들어오는 건 무조건 다 받아야지. 그들이 믿음으로 심는 건데 왜 막아?” 했네.

아마 그의 생각에는 넘치도록 있는데, 더 받는 것이 욕심 같고,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야.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네. 성도들이 하늘에 상을 쌓겠다고 심는데 막으면 되겠는가? 욕심이라고? No. 다 받아서 가난한 자, 꼭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니겠나?

언젠가 지교회 입당예배에 갔는데, 담임목사가 “목사님, 강대상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분이 강대상을 하겠다고 하네요. 어쩌면 좋죠?” 했을 때도. 나는 다 받으라고 말했었네. 받아서 강대상 없는 교회에 보내면 이 또한 얼마나 좋겠나.

둘째 아들이 중학교 다니던 때에 어느 장로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해서 내가 막았었네. 그때 아들 녀석이 한 말이 아주 걸작이었네. “아빠, 왜 막아요? 하나님

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주겠어요?” 그러는 거 아닌가? 맞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여보게!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린다네. 그것을 목사가 막으면 안 되지. 예전에 부흥회에 가서 설교 후 헌금 시간에, “오늘은 헌금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네. 사람 보기에는 내가 멧진 목사처럼 보였을 게야.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오만이지, 죄임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네.

사실 목사로서 십일조와 헌물 설교가 가장 어렵지. 그럼에도 입을 열어 전하는 것은 심는 대로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네. 예전 나에게 ‘흙은 속이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쳤던 토레이 신부의 말은 진리야. 그래서 나는 ‘힘든데 왜 이걸 해~’ 하지 않고 ‘그래, 잘했어. 그래야 나지.’ 한다. 왜? 심으면 30배, 60배요, 넘치게는 100배를 받는 걸 아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7)

봉우

어떻게 했더라?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다. 이 노인은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수염이 그분의 인품과 지식을 한층 돋보이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을 존경했고, 마을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의견을 묻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노인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노인 앞에 앉아 뻘뻘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안경 너머로 아이를 쳐다보고 물었다.

“뭘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느냐?”

“할아버지 수염요.”

노인이 새삼 수염을 다시 만지는데 아이가 묻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놓고 주무세요?”

아이의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머뭇거리기만 했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갑

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노인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수염을 이불에 넣고 잤나, 아니면 이불 밖에 놓고 잤나?’

노인은 수염을 이불 안에 넣었다, 꺼냈다 날이 새도록 고민했으나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습관이라 부른다.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당신을 훌륭한 사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든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눅 22:39).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소망의 언덕 ::

기도의 근육

지난 3월, 목회자 세미나는 언제나처럼 큰 도전과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도의 근육’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노랑진 기도회가 3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저녁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목사님께 매일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 얻는 은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잊게 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저는 함께 방을 쓰는 분들을 위해 알람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알람 없이도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졌고, 자연스럽게 성전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1시간 40분의 기도와 강의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를 합쳐 하루 6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의 근심, 걱정,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명료한 판단력을 얻어 이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훈련받으면서 기도의 ‘뚝’ 자체가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총회장 목사님을 따라 십수 년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것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몸을 쓰지 않으면 빠근함을 느끼듯,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영적인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운동 강도처럼 강도 높은 기도, 즉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매일 6시간씩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최대한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기도의 ‘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도의 ‘뚝’을 더욱 채워나가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기가 힘드시다면 노랑진 교육관으로 기도하러 나오세요. 영적 트레이닝 장소로 기도의 양과 강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 후에 전해주시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별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현승 목사

:: 목회자 간증 ::

:: 신앙에세이 ::

‘새롭게 하소서’ 초청 이벤트를 했습니다



“양산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라 시니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내려온 경남 양산. 우리 양산교회는 총회장 목사님 지휘하에 순종하며, 특공대 대장 아산 박인덕 목사님과 뜻있는 여러 목회자, 집사님 도우심으로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고, 밖엔 큰 LED 간판까지 달고, 정리될만한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활했습니다. 첫 예배에 50대 후반의 여성(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분이 오셔서 개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분을 열심히 예수님처럼 섬기며 한 달가량 만에 15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2년이 지날 무렵, 변화하려고 부단히 연구하고 찾다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 감동 따라 작년부터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한다 생각하면 힘드시니 전도는 하지 마세요. 그냥 초대, 초청잔치 한다 생각하십시오. 초청만 하세요. 모시고만 오세요. 목사는 목숨 걸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전도하면 정착은 성령님께서 해주실 겁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초대카드를 나눠드리고, 포스터를 입구부터 통로, 화장실까지 도배했습니다. 목적은 눈으로 보며 초대를 각인시켜서 스스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에 설치했습니다. 하루 3번에 나눠 오전, 오후, 저녁 2~3시간씩 기도하고, 짬 시간에는 경로당으로, 하루는 야쿠르트, 이틀 뒤는 빵튀기를 준비하여 집사람과 홍보를 나갔습니다. 옛말에 ‘목구멍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마음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고, 퍼주고 망한 장사 없다잖아요. 정한 날짜가 다가오니 안 움직이던 성도님들도 분주하게 기도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할머니께서 “4층은 미안해, 힘들어서 못 가겠어.” 하시자, 집사람이 지혜롭게 말하길, “할머니, 생각을 바꾸시면 쉽습니다. 4층 같은 1층, 1층 같은 4층. 한 층 올라오시면 쉬면서 1층, 1층 하면 4층에 도착하십니다. 잘생긴 목사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맛있는 식사와 다과, 커피까지 드시고 가실 때 선물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 볼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어려움이죠. 재정입니다. 기도 후 몇몇 지인분들께 전화 드리고 문자 보내니 흔쾌히 기쁨으로 동참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잔치를 잘 치르고 오병이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누군가가 1층 전단지, 포스터를 다 찢어서 구겨놓고 갔습니다. 구겨진 포스

터를 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듯 아팠습니다. 전단지를 주워 4층 교회에 올라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주여, 손 좀 봐주세요.” 하고는 다시 내려가서 포스터를 붙이고 올라와 기도했는데, 다음 날 또 찢어댜더군요. 이제는 화도 안 나고 “주여, 누군인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습니까? 그 사람 깨닫고 복을 주세요.” 기도하고, 또 뜯으면 또 붙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친지, 이웃, 새로 만난 지인분들까지 초대에 응해주셔서 27명이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수시대 101세 할머니께서도 운동도 하시고, 아이들 게임도 하시고, 노인유치원에 가서서 무엇을 배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젊은 사람들도 깨닫고 각성해야 합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 총회장 목사님은 성공한 음식점과 성공한 교회의 공통점을 나열하시면서 ‘이벤트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모셔서 음식도 같이 나누고 다과도 나누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됩니다. 우리 양산교회는 이벤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은 분명히 백 배, 천 배로 축복해주시고,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양산 예수중심교회가 되겠습니다.

양산 예수중심교회 권종성 목사

예배, 은혜, 임재

전도를 해보려 교회 얘기를 꺼냈을 때, 현재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예전에 다녀본 적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꼭 교회에 가야 하나?” 어느 정도 성경을 읽어보았고, 어느 정도 기도해본 적 있고, 또 어느 정도 믿음도 가져왔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간부가 나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소문난 나를 불러 여러 간부들 앞에서 물었다. “박 상병, 믿음이 있는데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혼자 성경책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때 나는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했다. “장작불은 모여 있으면 오래 훨훨 타지만, 홀로 떨어져 나온 장작불은 계속 타 것 같아도 금세 꺼지고 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지만, 충만함은 예배의 자리에서 받는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임재하심을 느낀다. 거룩한 공회는 교회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을과 같은 교회에는 오아시스와 같은 예배의 자리가 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할 때 매번 하나님은 우리를 꼭 품어주신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성경은 말씀하신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

박찬영 집사
cross35@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베드로와 소양인(少陽人)의 체질적 특징

성경 속 인물 중 가장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사도로 손꼽히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살펴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체질(四象體質) 중 소양인(少陽人)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에서 사상체질은 인간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나뉘며, 각 체질은 고유한 성격, 신체적 특징, 건강 상태, 질병 취약성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소양인 체질에 가까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이 큰 성격
마태복음 14장 28~29절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본인도 물 위를 걸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뛰어들고, 바람이 불자 즉시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는 모습, 누가복음 22장 33~62절에 주님과 함께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으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두려움 속에 빠

집니다. 소양인은 공정함을 추구하고, 누구보다 속이는 것에 대해 속상함과 서글픔이 많은 체질입니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소양인의 갑작스러운 슬픔이나 심한 분노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는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통곡하는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 2)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
사도행전 2장 14~41절에 초대교회 오순절 설교에서 단번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소양인은 총명하고 활동적이며, 경쟁력이 강한 체질입니다. 사회적 활동에서는 뛰어난 추진력을 발휘하지만, 가정이나 가까운 관계에서는 쉽게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강하지만 추진하는 일들이 잘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소 과장하여 돋보이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동의수세보원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 3) 활동적이고 육체적으로 강한 체력
요한복음 21장 6~11절에 물고기 153마

리가 가득 든 그물을 끌어올리는 강한 신체를 보여주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량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양인은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활동적이며, 근육량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변 상태는 소양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양인은 화가 나면 황련(버버린), 치자가 스트레스와 화를 낮추어주며, 체력이 저하될 시에는 산수유, 구기자 등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화타는 ‘양생의 방법은 과도한 욕심으로 애써 힘들게 해서 크게 피로해지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양인은 안을 살피며 추진하는 일들이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걱정을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라’고 이제마 선생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춘계 산상집회

날자: 4월 28일(월) ~5월 1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

문의: 02. 533. 9191